

Session 16 The Apostle John: His Threefold Spiritual Identity

제 16 강 사도 요한: 3 가지 영적 정체성

I. UNDERSTANDING OUR PRIMARY REWARD

우리의 주된 상급에 대한 이해

- A. In Jesus' training of the disciples, He called them to find their identity in their relationship to Him instead of in what they did, how people viewed them, or in their accomplishments or resources. It is common to hear about sincere believers who are spiritually dry, disillusioned, or burned out. How does this happen? It is by pursuing God and ministry with a wrong mindset. Renewal is within reach of any believer who will change their mindset, as illustrated by the life of John.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킴에 있어, 그분은 그들이 무엇을 했거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 것, 혹은 과거의 성취나 가진 것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정체성을 찾으려 하셨다.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있거나, 환멸을 느끼거나, 지쳐버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곤 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는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사역을 섬기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는 마음을 바꿀 때에 내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요한의 삶에서 볼 수 있다.

- B. Abraham is the father of our faith (Rom. 4:16). God showed him how to live the "life of faith." The Lord revealed Himself to Abraham as his **exceeding great reward** or his primary reward. God promised Abraham wealth, honor, and a historic impact on the nations (Gen. 12:1-3; 17:2).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롬 4:16).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보여주셨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자신이 "지극히 큰 상급," 즉 주요 상급임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와 명예, 역사를 통해 열방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약속해주셨다 (창 12:1-3; 17:2).

¹Do not be afraid, Abram. I am your shield, your exceedingly great reward. (Gen. 15:1)

¹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1)

- C. **Defining Jesus as our greatest reward:** This includes receiving grace to feel love from God and to love Him in return. The revelation of Jesus' love and beauty tenderizes and fascinates us. Walking in this becomes our greatest desire, highest life vision, and most urgent prayer request. The Spirit will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first place in the Church before Jesus returns.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받아들이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는 일을 포함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를 매혹시킨다.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 되며, 최고의 삶의 비전이 되며, 우리의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첫째 계명을 교회의 최우선의 자리에 세우실 것이다.

- D. **Two categories of God's blessing:** Our primary (greatest) reward is Jesus Himself. Our secondary rewards include His favor on our relationships, circumstances, our impact, etc.

하나님의 축복의 두 가지 분류: 우리의 주된 (가장 큰) 상급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차적인 상급은 우리의 관계와 환경, 영향력 등에 부여하시는 그분의 축복이다.

- E. Focusing on secondary rewards can hinder our focus on our primary reward. When they increase, some get so preoccupied with them that they become **distracted** in thei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when they are delayed or decreased, they become greatly **discouraged**. But when Jesus is our primary reward, we can overcome distraction and disappointment as our heart is renewed by encountering Him.

우리가 이차적인 상급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주된 상급을 놓쳐버릴 수 있다. 이 일이 더 증가하게 될 때 어떤 경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으며**, 우리 삶이 지연되거나 영향력이 감소하는 일이 일어날 때 크게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된 상급이며,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 초점을 잃거나 실망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

II. JOHN'S TESTIMONY: BECOMING A SON OF THUNDER IN THE SPIRIT

요한의 삶: 영적인 우리의 아들이 됨

- A. The life of John provides us with a picture of what it means to have Jesus as our primary reward. When John was young, Jesus prophetically named him a “son of thunder.” This prophecy marked his spirit, giving him a vision to experience God’s thunder. This speaks of the revelation of God’s love thundering in John’s heart along with deep love thundering in him back to God.

요한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상급으로 삼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요한은 젊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예언적으로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 예언은 그의 영에 각인되어, 그는 하나님의 우리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요한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이 울려 퍼지며,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와 같은 깊은 사랑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¹⁷James...and John...to whom He gave the name...“**Sons of Thunder**”... (Mk. 3:17)

¹⁷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막 3:17)

- B. The “thunder of John’s heart” was initially expressed through his fleshly personality. Our heart naturally thunders with ambition, lust, rejection, anger, bitterness, fear, etc.

“요한의 마음의 우뢰”는 처음에는 그의 육적인 성품을 통해 표출되었다. 우리의 마음에는 천성적으로 야망과 정욕, 거절과 분노, 쓴 마음과 두려움 등이 우리와 같이 쏟아진다.

- C. Near the end of John’s life, he wrote his gospel. In John 21:20, he wrote his “signature” for his life work. In this verse, he interpreted what it meant to him to live as a “son of thunder.” It tells us how John carried his heart and expressed his highest life goal (his primary dream), defining for us what it means for Jesus to be our great reward.

요한의 삶의 말미에 복음서를 기록했다. 요한복음 21:20 절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 작품에 “서명”을 남겨놓았다. 이 구절에서 그는 “우리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놓았다. 이는 요한이 어떻게 마음을 품었는지, 그의 삶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며 (그의 가장 큰 꿈), 예수님이 가장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²⁰Peter...saw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John] following, who also had **leaned on His breast** at the supper and said, “Lord, **who is the one who betrays You?**” (Jn. 21:20)

²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요 21:20)

III. UNDERSTANDING OUR TWOFOLD IDENTITY

우리의 이중 정체성에 대한 이해

- A. Our confession is: “I’m loved [by God], and I am a lover [of God]; therefore, I am successful.”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따라서 나는 성공한 자다.”

- B. We are already successful in life if we receive God’s love and return it. We are most effective when we approach life as already being successful (instead of gaining it from accomplishments). There are two significant aspects of who we are.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성취를 통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1. Our **spiritual identity** is our primary identity. It includes who we are before God (as people who are loved by Jesus) and how God sees us (as people who love Jesus).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우리의 주요 정체성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지(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부분이다.

2. Our **natural identity** is our secondary identity. It includes what we accomplish before people and how they see us.

우리의 **자연적인 정체성**은 이차적인 정체성이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취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의 부분이다.

- C. John wanted to be known by how he related to Jesus, not by what he accomplished before men.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로 알려지기를 원했으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성취한 것으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 D. John had one of the greatest “resumés” in history by being in relationship with Mary (Jn. 19:26-27) and the apostles, including Peter and Paul. He was instrumental in great revivals and wrote five books of the New Testament. Jesus promised him he would rule on a throne in Israel (Mt. 19:28), and he saw his name on a foundation of the wall in the New Jerusalem (Rev. 21:14).

요한은 마리아와의 관계 (요 19:26-27),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과의 관계로 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위대한 부흥에 사용되었으며, 신약의 5 개 책을 썼다.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보좌에서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으며 (마 19:28),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 기초석에 있는 것을 봤다 (계 21:14).

- E. John never mentions his own name in his gospel, but refers to himself five times as “the disciple the Lord loved” (Jn. 13:23; 19:26; 20:2; 21:7, 20).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다섯 번 언급했다 (요 13:23; 19:26; 20:2; 21:7, 20).

IV. JOHN SAW HIMSELF AS ONE WHOM JESUS LOVED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겼다

²⁰Peter, turning around, saw the disciple [John] whom Jesus loved following... (Jn. 21:20a)

²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 따르는 것을 보니 ...(요 21:20a)

- A. God loves us in the way that God loves God. Jesus feels the same intensity of love for us that the Father feels for Him. This truth gives us the right to stand before God with confidence as one of “**His favorites.**” Our confession is: “Jesus, You love me like the Father loves You.”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분을 향해 가진 사랑과 동일한 사랑의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설 권리를 준다.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당신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⁹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abide in** [stay focused on] **My love.** (Jn. 15:9)

⁹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에 집중하라] (요 15:9)

- B. On the same night that Jesus spoke of His great love (Jn. 15:9), He also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ould all deny Him. He knew what He was getting into when He chose us. It is pride to think our sin is bigger than His love. It takes humility before God to be bold in His love.

예수님이 그분의 큰 사랑을 고백하신 바로 그날 밤 (요 15:9), 그분은 제자들 모두가 그분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사랑보다 크다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이다. 그분의 사랑에 대해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한다.

³¹**All of you will be made to stumble because of Me this night...** (Mt. 26:31)

³¹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 (마 26:31)

- C. John took hold of what Jesus said in John 15:9 and held on to it for the rest of his life. It was foundational to his identity. About seventy years later, he was still saying, “I am the disciple that God loves.” When we know the King loves us, we are unmoved, even when others overlook us.

요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9 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삶 전체에서 붙들고 살았다. 이는 그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였다. 약 70 년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고백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왕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V. JOHN LEANED ON JESUS' HEART: LOVING JESUS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고 있음: 예수님을 사랑함

²⁰The disciple...who also had leaned on His breast at the supper... (Jn. 21:20b)

²⁰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요 21:20b)

- A. John leaned on Jesus' heart—he set his heart to love Jesus and to be as near to Him as possible. This was John's primary life goal, his primary dream. It was his greatest prayer and desire. John had a masculine personality, but was not ashamed to be known as one who loved Jesus.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기대고 있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며, 가능한 그분 가까이 있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도 요한의 삶의 주요 목적이자, 가장 큰 꿈이었다. 또한 이는 그의 가장 큰 기도이자 갈망이었다. 요한은 남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¹⁴Because he has set his love upon Me, therefore I will deliver him... (Ps. 91:14)

¹⁴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시 91:14)

- B. He leaned on Jesus' heart at the Last Supper, which was soon after Jesus rebuked him for having a wrong spirit (Lk. 9:46-56; Jn. 13:23). John had boldness in Jesus' love, without any shame.

그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심장에 기댔으며, 이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다고 꾸짖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후였다 (눅 9:46-56; 요 13:23).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수치심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VI. JOHN POSITIONED HIMSELF TO RECEIVE GOD'S SECRETS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다

²⁰The disciple who...said, "Lord, who is the one who betrays You?" (Jn. 21:20c)

²⁰ 그 제자..."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요 21:20c)

- A. John positioned himself to receive the secrets of Jesus' heart. Having Jesus as our great reward involves gaining insight into what is near and dear to His heart from Scripture, dreams, etc.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의 비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다.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삼는 것에는 성경 말씀, 또는 꿈 등을 통해 그분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 무엇이며, 그분의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일도 포함한다.

- B. At the Last Supper, Jesus was troubled by Judas' betrayal. It was a great crisis in His team. Judas was Jesus' friend (Mt. 26:50) and was trustworthy enough to be over the money (Jn. 13:29).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괴로워하셨다. 이는 그분의 팀에 큰 위기였다.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였으며 (마 26:50), 재정을 맡길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요 13:29).

²¹He was troubled in spirit...and said, "...one of you will betray Me." ²²Then the disciples looked at one another, perplexed about whom He spoke. ²³There was leaning on Jesus' bosom one of His disciples, whom Jesus loved. ²⁴Simon Peter therefore motioned to him to ask who it was of whom He spoke. (Jn. 13:21-24)

²¹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²²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²³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²⁴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요 13:21-24)

- C. How do we practically receive Jesus' secrets? It is done by sitting at His feet to hear His Word as Mary of Bethany did. One way we do this is by prayerful meditation on the Word. Jesus defined this as good. No one can choose to do this for us. We must choose to do this over and over.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이는 베다니 마리아가 그랬듯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 발 앞에 앉아있음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좋은 편이라 말씀하셨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줄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하기로 계속해서 다시 선택해야 한다.

³⁹Mary...sat at Jesus' feet and heard His word... ⁴¹Jesus said... ⁴²“One thing is needed, and Mary has chosen that good part, which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Lk. 10:39-42)

³⁹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 ⁴¹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 ⁴²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39-42)

- D. Some search the Word only to prepare a message to speak to others, instead of to encounter God.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찾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한다.

- E. Mary of Bethany had no public teaching ministry. She sat at Jesus' feet to understand His heart. Determining what it means to spend long hours with God is different for each person.

베다니 마리아는 대중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쳐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 앞에 앉았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의 의미는 다르다.

- F. God gives His secrets to those who desire them enough to sit before Him. John sat before God long hours as David did (Ps. 27:4). The book of Revelation was one of the secrets given to John.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앞에 충분히 앉아있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누신다. 요한은 다윗이 그랬듯이 (시 27:4)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앉아 있었다. 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어진 비밀 중 하나였다.

¹⁴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ose who fear Him... (Ps. 25:14)

¹⁴여호와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 25:14)

VII. JOHN'S JOURNEY: FROM A WRONG SPIRIT TO A SON OF THUNDER IN THE SPIRIT

요한의 여정: 잘못된 영에서 영적인 우리의 아들로 거듭나기

- A. John was transformed from being a son of thunder in the flesh to a son of thunder in the Spirit. This transformation took place in him as he saw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the Lord loved.**”

요한은 육신적으로 우리의 아들이었다가 영적인 우리의 아들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그가 그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볼 때 일어났다.

- B. In his youth, John was preoccupied with having preeminence over others. On the road to Capernaum, the disciples argued about who was the greatest (Lk. 9:46; Mk. 9:33-34).

요한은 젊었을 때에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투었다 (눅 9:46; 막 9:33-34).

⁴⁶Then a dispute arose among them as to which of them would be greatest. (Lk. 9:46)

⁴⁶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눅 9:46)

1. Soon after Capernaum, on the way to Jerusalem, John asked about being the greatest.

가버나움 직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한은 크게 되기를 구했다.

³³The Son of Man will be betrayed...³⁵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³⁷said, “Grant us that we may sit, one on Your right hand and the other on Your left, in Your glory.” ⁴¹The ten...began to be greatly displeased with James and John. (Mk. 10:33-41)

³³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³⁵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 ³⁷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⁴¹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막 10:33-41)

2. John’s mother also brought up the issue of them being the greatest.

요한의 어머니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크게 되도록 구했다.

²⁰The mother of Zebedee’s sons came to Him...asking something from Him. ²¹He said to her, “What do you wish?” She said, “Grant that these two sons of mine may sit, one on Your right hand and the other on the left, in Your kingdom.” (Mt. 20:20-21)

²⁰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²¹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 20:20-21)

- C. John sought to stop a man from helping others because that man was not “on our team.”

요한은 어떤 이가 다른 이를 돕는 것을, 그가 “자신의 팀이 아니라는 이유로” 돕지 못하게 했다.

⁴⁹John...said, “Master, we saw someone casting out demons in Your name, and we forbade him because he does not follow with us.” ⁵⁰Jesus said, “Do not forbid him...” (Lk. 9:49-50)

⁴⁹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⁵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 (눅 9:49-50)

- D. John wanted to call fire down on a city that did not receive Jesus’ ministry. A few years later, John prayed to release the fire of Holy Spirit on Samaria (Acts 8:14-15).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마을에 불을 내리길 원했다. 몇 년 후,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길 기도했다.

⁵¹They [James and John] entered a village of the Samaritans...⁵³But they did not receive Him...⁵⁴James and John...said, “Lord, do You want us to command fire from heaven...as Elijah did?” ⁵⁵He rebuked them, “You do not know what manner of spirit you are of.” (Lk. 9:51-55)

⁵²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⁵³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⁵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⁵⁵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한글 KJV: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눅 9:51-55 KJV)

- E. John's testimony is how a person was transformed from being a son of thunder in the natural with negative emotions (pride, anger, lust, etc.) to being a son of thunder in the spirit.

요한의 삶은 모습은 어떻게 한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교만, 분노, 정욕 등) 본성적인 우리의 아들에서 영적인 우리의 아들로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F. **Summary:** We embrace a right mindset in becoming a "son of thunder in the Spirit" by setting our vision to go deep in God and making Jesus our primary reward, the primary dream of our life. We must see ourselves differently and change our confession before God. We are those who are loved by Jesus, who lean on His heart in our love for Him, and who seek to know His secrets. Even in our weakness, we are the ones that He loves and delights in (Ps. 18:19; 149:4; Isa. 62:4).

요약: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비전을 가지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한 상급, 삶의 가장 큰 꿈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것을 통해 "성령 안에서의 우리의 아들"이 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르게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을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마음에 기대는 자이며, 그분의 비밀들을 알기를 구하는 자이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자이다 (시 18:19; 149:4; 사 62:4).

- G. **Our confession:** We say to Jesus, "You feel about me like the Father feels about You. I am Your beloved, Your favorite one. You delight in me. You desire me. I lean on Your heart because I love You. That is who I am and what I do. I commit to receive from Your heart by feeding on Your Word. I will sit long hours before You because I want to know the secrets of Your heart."

우리의 고백: 우리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당신의 총애를 받는 자입니다. 주님은 저를 기뻐하시며 갈망하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마음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며, 제가 할 일입니다. 제가 당신의 말씀을 먹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당신의 마음의 비밀을 알기 원하기에, 당신 앞에 긴 시간을 앉아있기를 원합니다."